

# 한반도 평화지수

■ 2013년 1분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평화지수, 2013년 1분기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종합 평가)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5p 상승한 55.4로 세 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2009년 최초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새 정부 하의 남북관계는 이전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남북교역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에 방점을 두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2년 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실적치도 20p 소폭 상승하여, 남북 간 긴장고조 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특징) 2012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4/4분기 전문가 평가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33.9로 지난 분기의 27.6에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북한 매체들이 연말 경 농업개혁이 포함된 6.28 조치를 비롯해 '새 경제관리방법'을 잇따라 언급한 것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삼갔던 점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지난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는 51.9에서 55.4로 3.5p로 상승하여, 2013년 1분기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경색 국면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한 것과, 새 정부가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강조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하락은 정치 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전기 대비 3.6p 하락)와 경제 사회 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전기 대비 0.7p 하락)의 동반 하락에 기인한다. 특히 '교류 지수는 11년 2분기 이후 1년 반만에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과 민간의 인도적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액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2012년 3분기 41억 4,200만원 → 2012년 4분기 1억 1,9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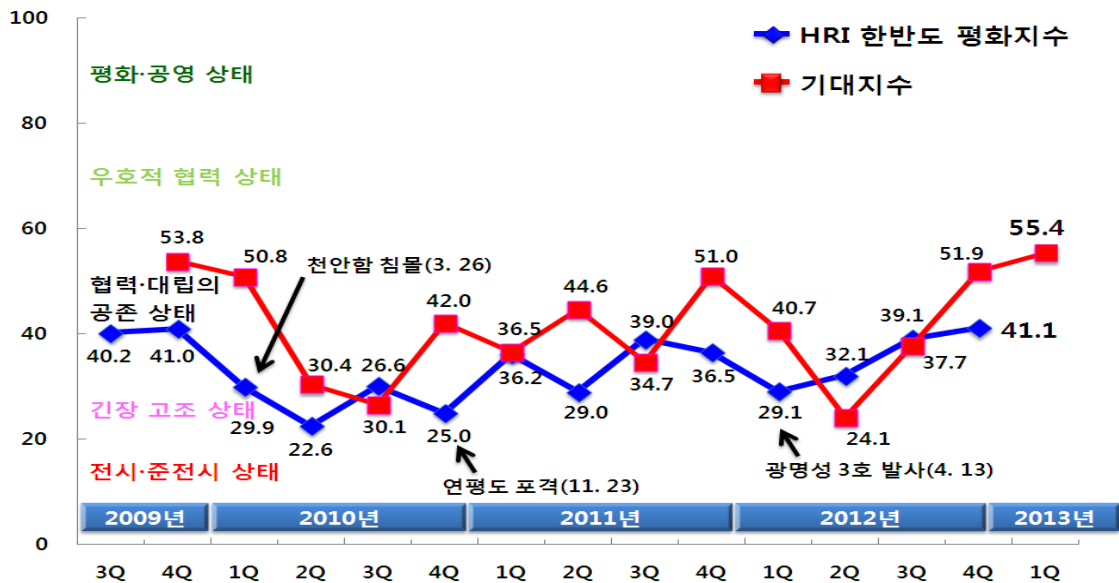
넷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실적치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모두 상승했으나, 기대치에 있어서는 진보성향의 평가는 하락하였다.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의 기대지수는 각각 8.4p, 9.5p 상승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은 3.4p 하락하였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라는 안보 위협 상황 발생과 18대 대선에서의 진보 성향 후보 낙선에 따른 상실감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3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 (종합 평가) 2012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20p, 3.5p 소폭 상승

-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남북교역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에 방점을 두었다는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한반도 평화지수의 경우 천안함 침몰 사건(29.9), 연평도 포격 사건(25.0), 광명성 3호 발사(29.1)때와 비교해서도 13p 이상 높게 나타남
- 2012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41.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상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3/4분기 39.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2.0p 상승한 41.1을 나타냄으로써 전분기의 상승세를 유지함
- 기대지수도 3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2013년 1/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5p 상승한 55.4로 나타났고, 이는 2009년 최초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새 정부 하의 남북관계는 이전에 비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09~2013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 (특징 분석)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 모두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소폭 하락

-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6.3p 상승한 33.9를 기록한 반면,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전 분기 대비 2.2p 소폭 하락한 48.3을 기록함
  - 지난 분기에 크게 상승한 정량분석지수가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의 대북수해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잇따른 NLL 침범, 남북한 교역액의 소폭 감소로 하락된 것으로 분석
-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의 상승세를 유지하여, 2013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경색 국면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표명한 것과, 새롭게 출범할 새 정부가 대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회복을 강조한 것이 긍정적 영향으로 미친 것으로 평가
- 한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축소됨으로써, 남북관계는 이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 )는 14.4p로, 지난 분기 22.9p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감소
  - 이는 전문가 평가지수가 전분기의 27.6에서 33.9로 6.3p 상승한데 기인

< 2010~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교류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2-4분기	41.1 (▲2.0)	33.9 (▲6.3)	48.3 (▽2.2)	48.1 (▽3.6)	48.5 (▽0.7)	55.4 (▲3.5)
'12-3분기	39.1 (▲7.0)	27.6 (▲0.4)	50.5 (▲13.5)	51.7 (▲15.4)	49.2 (▲11.5)	51.9 (▲14.2)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15.5	34.5	32.8	36.2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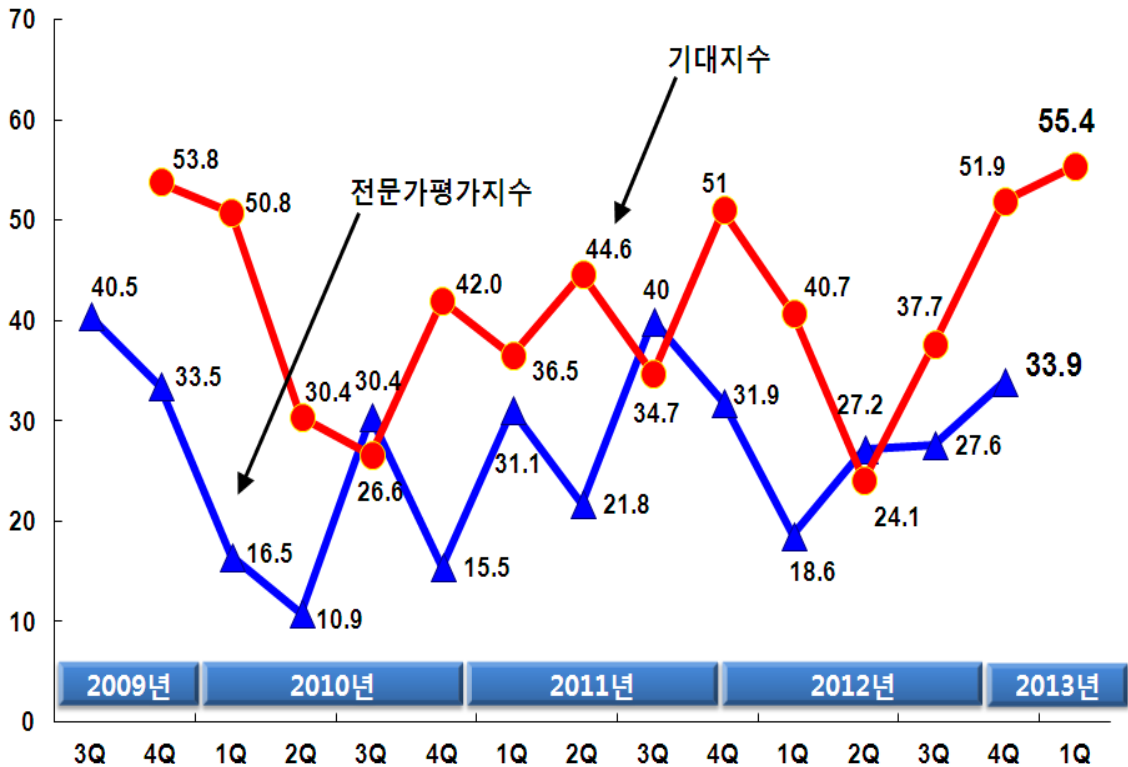
주 :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 (항목별 평가) 전문가 평가지수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상태'이며, 실적에 기초한 정량지수는 남북교류협력지원액 미집행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

(1) 전문가평가지수 (2012년 3분기 : 27.6 → 2012년 4분기 : 33.9)

- 총 105명의 전문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의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함
  -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6.3p 상승한 33.9를 기록하였음
  - 한편, 전문가평가지수는 2012년 2분기부터 27.2→27.6→33.9의 상승세를 유지
  - 이는 북한 매체들이 연말 경 농업개혁이 포함된 6.28 조치를 비롯해 '새 경제 관리방법'을 잇따라 언급한 것과,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삼갔던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2013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3.5p 상승한 55.4를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3년 1/4분기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3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

< 2009~2013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



(2) 정량분석지수 (2012년 3/4분기 : 50.5 → 2012년 4/4분기 : 48.3)

-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50.5보다 2.2p 소폭 하락한 48.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지난 분기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하락은 정치·군사 부문의 '이벤트 지수(전기 대비 3.6p 하락)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전기 대비 0.7p 하락)의 동반 하락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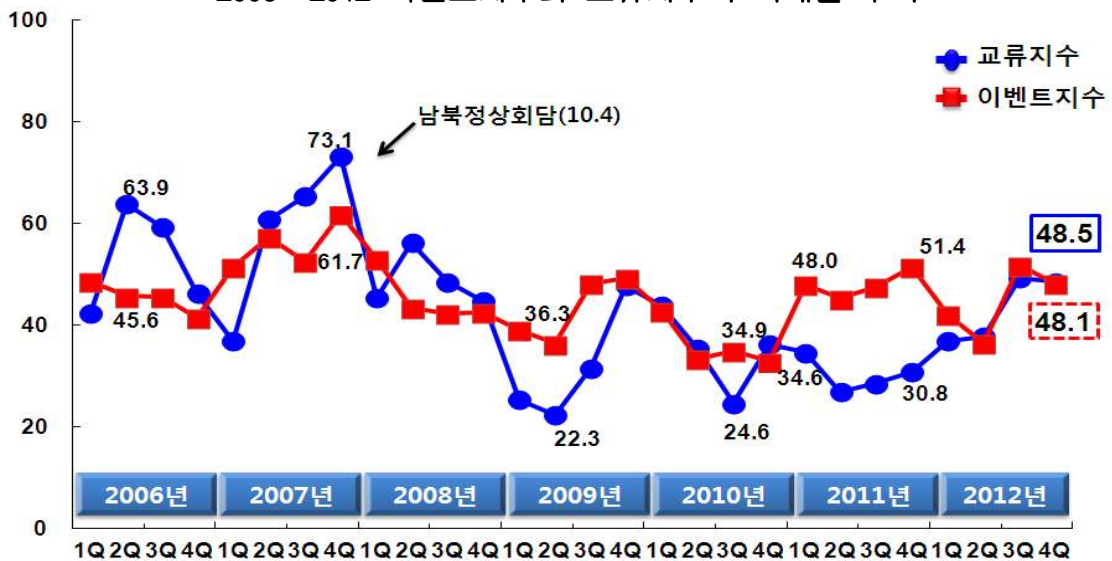
① 이벤트지수 (2012년 3/4분기 : 51.7 → 2012년 4/4분기 : 48.1)

- 이벤트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3.6p 하락한 48.1을 기록하여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
-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에 벌금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10월 중순까지 이어진 서해 NLL 침범, 로켓 발사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② 교류지수 (2012년 3/4분기 : 49.2 → 2012년 4/4분기 : 48.5)

- 교류지수는 전기 대비 0.7p 하락한 48.5를 기록하여 전기의 상승세가 다소 약화
- 교류지수의 소폭 하락은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 및 민간의 인도적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액 집행이 미진한 것에 기인 (2012년 3분기 41억 4,200만원 → 2012년 4분기 1억 1,900만원)

< 2006~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분석)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응답되었으나, 기대치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의 평가가 다소 하락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4.3, 37.1, 30.6으로 지난 분기의 30.4, 28.6, 26.6에 비해 소폭 상승
  - 전문가 평가지수는 성향을 떠나 모두 상승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전기 대비 현재의 남북관계를 다소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성향별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의 기대지수는 상승한 반면,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의 기대지수는 각각 8.4p, 9.5p 상승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반면, 진보 성향은 3.4p 하락하였음
  - 진보적 성향의 기대지수가 하락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라는 안보 위협 발생과 18대 대선에서의 진보 성향 후보 낙선에 따른 상실감이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12. 3분기	30.4 (▲0.3)	49.2 (▲8.2)	28.6 (▽0.9)	47.6 (▲10.3)	26.6 (▲0.5)	54.4 (▲18.8)	27.6 (▲0.4)	39.1 (▲7.0)	51.9 (▲14.2)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36.2 (▲11.2)	44.6 (▲8.1)
'10 4분기	14.4	32.3	24.2	41.5	10.4	35.3	15.5	25.0	36.5

경제연구본부 이용화 선임연구원(yhlee@hri.co.kr, 02-2072-6222)

홍순직 수석연구위원(sjhong@hri.co.kr, 02-2072-6221)

##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sup>1)</sup>

###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태	20이하

1)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을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 조사

###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3년 1월 14일~23일 (10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등 북한관련 전문가 105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 2. 조사 내용

####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 1. 정치·군사 관계

######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4	27.9
2. 그렇지 않다	31.4	43.3
3. 보통이다	43.8	28.8
4. 그렇다	13.3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3.3	24.0
2. 그렇지 않다	32.4	52.9
3. 보통이다	42.9	22.1
4. 그렇다	10.5	1.0
5. 매우 그렇다	1.0	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4	5.8
2. 그렇지 않다	41.9	36.5
3. 보통이다	33.3	42.3
4. 그렇다	12.4	15.4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0
2. 그렇지 않다	10.5	16.3
3. 보통이다	36.2	32.7
4. 그렇다	47.6	50.0
5. 매우 그렇다	2.9	1.0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2.4	25.0
2. 그렇지 않다	39.0	53.8
3. 보통이다	39.0	20.2
4. 그렇다	9.5	1.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3.8
2. 그렇지 않다	19.0	24.0
3. 보통이다	41.9	38.5
4. 그렇다	36.2	32.7
5. 매우 그렇다	1.0	1.0
계	100.0	100.0

## 2 경제적 관계

###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3	23.1
2. 그렇지 않다	45.7	51.0
3. 보통이다	38.1	24.0
4. 그렇다	1.9	1.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2.9
2. 그렇지 않다	15.2	16.3
3. 보통이다	29.5	28.8
4. 그렇다	48.6	49.0
5. 매우 그렇다	4.8	2.9
계	100.0	100.0

###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5.7	1.9
2. 그렇지 않다	24.8	29.8
3. 보통이다	42.9	43.3
4. 그렇다	26.7	25.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8	4.8
2. 그렇지 않다	28.6	38.5
3. 보통이다	45.7	39.4
4. 그렇다	21.9	17.3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1.4	18.3
2. 그렇지 않다	39.0	55.8
3. 보통이다	42.9	25.0
4. 그렇다	6.7	1.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	3.8
2. 그렇지 않다	16.2	17.3
3. 보통이다	40.0	40.4
4. 그렇다	40.0	37.5
5. 매우 그렇다	2.9	1.0
계	100.0	100.0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1	24.0
2. 그렇지 않다	40.0	48.1
3. 보통이다	41.0	27.9
4. 그렇다	1.0	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8.1	18.3
2. 그렇지 않다	44.8	51.9
3. 보통이다	33.3	27.9
4. 그렇다	3.8	1.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4.3	20.2
2. 그렇지 않다	48.6	47.1
3. 보통이다	36.2	29.8
4. 그렇다	1.0	2.9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3.3	18.3
2. 그렇지 않다	50.5	52.9
3. 보통이다	33.3	27.9
4. 그렇다	2.9	1.0
5. 매우 그렇다	0	0
계	100.0	100.0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5.8
2. 그렇지 않다	17.1	17.3
3. 보통이다	34.3	43.3
4. 그렇다	43.8	32.7
5. 매우 그렇다	1.9	1.0
계	100.0	100.0